

09

강원도

춘천시 | 허 천

원주시 | 이계진

강릉시 | 최육철

동해시 · 삼척시 | 최연희

속초시 · 고성군 · 양양군 | 송훈석

홍천군 · 횡성군 | 황영철

태백시 · 영월군 · 평창군 · 정선군 | 이광재

철원군 · 화천군 · 양구군 · 인제군 | 이용삼



선거구명	춘천시	허 천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경춘선 복선전철 2009년 조기완공**

- 경춘선 복선전철은 발전을 열망하는 춘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 지난 4년 동안 적기개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기채를 해서라도”, “정부가 보증을 해줘”, “차입금을 마련해서라도” 2009년에 반드시 완공하라는 이명박 대통령 · 한승수 국무총리의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 총사업비 2조5,955억원 중 작년말까지 1조2,682억원을 투입했고, 올해 예산으로 2,393억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잔여 사업비 1조880억원은 내년 정부예산으로 4,300억원을, 나머지 6,580억원은 기채, 정부 보증, 차입금 등의 방법으로 올해와 내년으로 나누어 조달하겠습니다.
- 경춘선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1일 편도 30회에서 101회로 수송능력 및 선로용량이 증가하고, 경춘간의 관광개발을 촉진시키며, 수도권 인구분산에도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공약 2 **첨단지식문화산업 집중지원 - 콘텐츠산업 육성 등**

- IT, BT, CT로 일컬어지는 첨단지식문화산업은 1995년 민선 초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안타까운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새롭게 거듭나고 있으며, 든든하게 성장해 춘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 다양한 콘텐츠산업의 지원 · 육성을 통해 춘천을 대한민국 첨단지식문화산업의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작년 말까지 총 38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이오타운 조성사업에 이어 제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2008~2012)을 추진하고, 구축된 장비를 중심으로 대표적 특화분야를 선정하여 R&D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2010년까지 총 87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한 콘텐츠산업(기획-제작-유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를 산 · 학 · 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창작전문 특화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강원

공약 3

대단위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으로 농촌경제의 활성화

- 농산물 수입개방 등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생명환경농업은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을 살릴 대안으로서 친환경 농업으로의 체질개선이 필요합니다.
- 친환경 농업단지 1읍면 1개소 조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농촌지역을 광역단지로 만들고, 친환경 농자재 생산·유통시설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돕겠습니다.
- 또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등 농촌 정주공간을 개선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시키겠습니다.
- 작년에 농림부로부터 사북면 인람리, 송암리, 고탄리, 고성1·2리 등 5개 마을로 이뤄진 솔바우권역이 선정되었고, 올해에도 북산면 추곡1·2리, 오향1·2리, 부귀리, 내평리로 구성된 소양호권역이 선정되어 각각 50여억이 지원되는데 앞으로도 매년 1권역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약 4

5+2 광역특별경제권 개발계획 중 철원-춘천-홍천-횡성-원주 '3각 테크노 소권역 발전전략'을 이명박정부의 중요정책으로 추진

- 발상의 전환이 성공하는 경쟁력입니다.
- 정부의 5+2 광역특별경제권 개발계획은 기존의 사고를 넘어 국가와 지역 발전의 새로운 틀을 짜는 실용적 발상입니다.
- 우리 춘천은 강원도의 수부도시이자 영서권의 중심입니다.
- 주변지역과의 상생(相生)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의 위상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 사업타당성 조사 및 산·학·연간 긴밀한 연계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강원광역경제권디자인연구소(가칭)를 설립하겠습니다.
- 강원도를 경쟁력 있는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도권 연계 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특별법 제정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특별광역경제권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제도 구축 등을 통한 자립가능환경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강원도의 새로운 역할 제고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정책 추진단계에서부터 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 제1의제 : 강원도형 재정분권 도입
 -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강화,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 및 세원이양방법을 법제화하겠습니다.
- 제2의제 :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 수도권 개발총량제 도입, 수도권 인구상한제 이행수단 도입 및 계획허가제 중심의 지속가능한 수도권관리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제3의제 : 청정환경교부세 도입
 -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이지만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청정환경교부세의 신설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존 특별교부세의 예로 보아 강원도에 현재보다 매년 수천억원대의 교부금이 증가될 것입니다.
- 제4의제 : 강원도형 지역재투자법 도입
 -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지역금융기반을 강화하고, 서민생활을 보호하며, 금융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정부의 적극적인 지역균형발전전략 촉진, 지역밀착 금융기관 활성화, 전통적 지역산업과 사회서비스업에서 고용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한국판 지역재투자법’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선거구명	원주시	이계진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원주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 조성지원

- 원주첨단의료기기산업은 지난 10여 년간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입증
- 특히 지난해 대선 당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방문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 건설’을 강원 10대 공약으로 내걸고, ‘원주첨단의료기기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
- 이에 대통령 선거공약의 연장선상에서, 공약 이행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음.
- 구체적으로는 기업도시 내에 R&D 인프라 확충을 통한 메디컬 과학기술 육성단지 조성 등을 위해 적극적인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겠음.
- 향후 사업계획 수립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예산추계가 확정되면, 원주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에 따른 국비확보 및 중앙정부 설득 노력을 해나갈 예정임.

공약 2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원활한 건설지원

- 원주는 전국 유일의 기업도시/혁신도시 동반조성이라는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바, 첨단의료기기산업클러스터+혁신도시+기업도시의 3각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한 ‘강원도의 중심, 원주! 50만 원주시대’를 착실히 준비해 나아갈 것임.
- 기업도시
 - 위 치 : 지정면 가곡리, 신평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
 - 사업규모 : 5,311,000㎡
 - 사업기간 : 2015년 예정
 - 사 업 비 : 7,491억 원 추정
- 사업시행자 : 원주시, (주)원주기업도시
- 기대효과 : 상주인구 2,5000명/종사인구 5,2000명/경제효과 1조여 원/고용효과 1만여 명
- 혁신도시

- 위 치 : 반곡동 일원
- 사업규모 : 3,603,048㎡
- 사업기간 : 2012년 예정
- 이전기관 :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13개 기관(단, 이중 산림항공관리본부는 혁신 도시 외로 이전하기로 합의)
- 계획인구 : 3,1200명
- 사 업 비 : 9,600억 원 추정
- 사업시행자 : 원주시, 한국토지공사
기업도시(7,500여억 원), 혁신도시(9,600여억 원) 추진 사업비의 차질 없는 확보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음.

공약 3 원주~덕소 복선전철 건설

- 중앙선 덕소~원주 간 복선전철화 사업은 수도권~강원권~충북권의 원활한 물류 이동을 위한 교통망 확충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덕소~원주 복선전철화 사업은 당초 2008년 완공을 목표로 1993년 기본설계에 착수하였으나, 1994~1996년 및 1999년 4개 연도는 예산 투입 '제로0'로서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어오다가, 지난 2001년 비로소 착공한 이래 지난해 58%, 올해 68% 공정을 보이고 있음.
- 그나마 다행인 점은, 17대 국회 들어 2005년 1,980억 원/2006년 1,700억 원 /2007년 2,090억 원/2008년 1,960억 원으로 비약적으로 증가, 안정적인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 향후 약 6,300여억 원의 예산투입이 필요하므로, 연간 1,500억 원~2,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8대 임기 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공약 4 국도 42호선(원주~새말) 4차선 확포장

- 노선명 : 국도42호선(인천~동해)
- 위 치 : 원주시 태장동 ~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 연 장 : 18.2km
- 사업비 : 2,950억 원 추정
- 교통량 : 일평균 8,454대(2006년 기준)
 - 7년 전인 지난 2001년 동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적이 있으나, 경제성을 이유로 보류(BC=0.57). 이후 주5일제 본격 시행 및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정체가 심화되고, 군 전차 등의 수시 통행으로 안전상 문제도 시급.

- 이계진 후보가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 강력 촉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차 선정되었음('08년 3월 10일 확정).
- 올해 8월 까지 실시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과 정책적 고려를 동시에 반영하여 반드시 통과되도록 함과 동시에,
- 통과 이후 조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2008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확정
 - 2008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노력
 - 2009~2010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노력
 - 2011~2012 착공추진 노력

공약 5 “WHO 안전도시 공인” 및 “WHO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현재 원주시에서는 WHO 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고 있는 바, 원주가 공인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지원과 함께, WHO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도시/건강도시 원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 ‘WHO 안전도시 공인’ 지원
 - 2008년 4월 공인신청 예정
 - 2008년 9월 WHO 현지실사 예정
 - 2008년 12월 공인확정 예정
- WHO 현지실사 및 공인확정 과정에서 국회차원의 최대한 지원을 이끌어 내겠음.
- ‘WHO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지원
 - 2008년도 건강도시 중점 추진과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인바, 6개 분야 80개 과제에 총 270억여 원 소요가 예상되고 있음.
 - 향후 국비부문이 확정되면 원활한 국비 확보와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음.

선거구명	강릉시	최육철
정당명	무소속	

공약 1 강릉 도시 전체를 관광공원화/관광상품화 하는 방안

- 강릉바다/경포호수/단오장/대관령을 관광벨트로 강릉 도시 전체를 관광공원화/관광상품화 하는 방안
 - 강릉바다 : 바다에 있는 세계 최초의 음악분수쇼 및 자연 스파(Spa)
 - 경포대 : 호수를 활용한 Waterscreen
 - 단오장 : 전통문화의 향기를 내뿜는 최첨단 영상시설설치, 국제 강릉영화제 개최 장소로 활용
 - 대관령 : 대형 스크린 및 레이저를 활용한 빛의 축제
- 강릉 알프스로드 설치
 - 대관령 → 단오장 → 경포대 → 강릉바다(주문진/정동진/옥계)를 연결하는 테마형 관광 레일 설치
 - 기본적으로 민자유치, 일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영화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충당
- 경포지구에 대규모 관광타운조성
 - 음악분수, 루미아르띠에, 아쿠아리움, 골프장, 가족형 콘도 및 호텔 숙박시설 온천 및 스파, 생태공원 등 사계절 가족형 종합리조트

공약 2 강릉 ↔ 원주간 복선전철사업 조기 추진

- 강릉 ↔ 원주간 복선전철사업 조기 추진
 - 계획 : 국가기관교통망 계획(1999/12,건설교통부)에 후반기 계획(2010~2019년)으로 포함된 철도
 - 필요성
 - 태백선을 제외하면 동서를 잇는 철도망이 전무한 도로서는 여객은 물론 산업물류의 대동맥 역할을 할 노선이다.
 - 도뿐 아니라 井자형 철도망 완성에 의한 물류 효율성 확보가 필요한 국가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 동서간 철도망 확충, 강원지역 개발 촉진 및 물류수송의 수도권지역 직결화

(서울 강릉간 소요시간 단축 : 6시간 40분에서 2시간대)

- 사업효과
 - 강원도권의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 영동고속국도 교통량분산 및 동절기 강설대비 대체교통시설 확충
 - 동해권으로의 접근시간 단축 및 대량 수송 교통서비스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동계올림픽의 유치와 상관없이 마무리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사업자 선정 및 공사착공을 조기에 추진

공약 3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앞장

- 동계올림픽 유치가 가져다주는 각종효과
 - 경제적 파급효과
2014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총생산액 유발효과는 15조2,087억, 부가가치 유발액은 7조1,376억원, 고용증대 효과는 22만 4,2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스포츠분야 파급효과
아시아 동계스포츠 확산과 발전의 중심적 역할
국내 동계스포츠 시장 확대 및 발전
하계 동계올림픽, 월드컵을 모두 개최한 스포츠 선진국 입증
스포츠 관광산업 발전
 - 지역적 측면에서의 효과
지역 균형 개발 측면
관광산업 육성의 효과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확충의 계기
- 위와 같이 강원도 발전과 배후도시인 강릉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앞장 서겠습니다.

공약 4 강원연고프로축구단창단

- 추진배경
 - 축구의 고장인 강릉시를 관광과 연계한 이미지로 마케팅
 - 강원도민의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
 -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의 증가로 인한 관광수입의 증대
- 추진 일정
 - 05.12. 2일 : 강원도 축구협회 주최로 강원연고프로축구단 창단 공청회 개최

- '06. 4 . 7일 : 창단 준비위원회는 이미 발족된 상태
- 스포츠산업진흥법안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07년 프로리그에 참여할 예정 이었으나 일정이 지연
 - * 최육철 후보는 강릉에서 개최된 공청회의 경비(5천만원)를 강원랜드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창단준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
- 향후 대책 및 재원조달 방안
- 빠른 시일내에 강원도 연고 프로축구단을 창단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의 개정이 필수적
 - 하나의 지자체에서 한 종목의 프로구단에 출자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 안정적인 지원과 흥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원도 및 도내 18개 시·군 참여
 - 강원도 (강릉)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창단

공약 5

강릉 남부권(강동, 옥계, 구정, 왕산, 성산)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

- 강릉 남부권은 80년대까지 도내 타 지역보다 많은 41개소의 석탄광산에서 1만 7000여명이 종사하며 국내 석탄 생산량의 4.7%를 생산
- 그러나 폐특법 시행령 3조에 명시된 진흥지구 3가지 요건 중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점유율(50%이상)이 낮아서 제외
 - 1988년 석탄생산량 (전국 석탄생산량의 3%이상)
 - 1988년과 1995년 사이 석탄생산량 감소추이 (40%이상)
 -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완화 및 진흥지구의 변경 등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강력요구

선거구명	동해시·삼척시	최연희
정당명	무소속	

공약 1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 동해항지구 : 컨테이너부두 설치 및 복합물류단지 조성
국제비즈니스도시에 걸맞는 주거, 교육, 레저 등 배후시설 확보
- 망상지구 : 국제수준의 4계절 해양레포츠 휴양관광단지 조성
- 근덕지구 : 친환경소재산업 등 첨단소재 거점산업단지 조성
- 호산지구 : 에너지관련 차세대 첨단에너지 복합산업단지 조성

공약 2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의 성공적 수행

- 삼척 LNG 인수기지 건설
- 종합발전단지 건설
- 방재종합단지 건설
- 묵호항 항만재개발사업
- 자유무역지역 조기 완공
- 도계캠퍼스 개교

공약 3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계속 추진

- 동해-삼척고속도로
- 동해중부선
- 국도 7호선(근덕-북면), 38호선(미로-태백)
- 국도 42호선(달방댐-백봉령구간 확장)
- 망상-옥계구간 확장
- 중산-추암간 도로 국비지원
- 항만 및 국가어항 및 관광어

공약 4 주민복지 및 관광자원 개발

- 국민임대주택건설
- 망상골프리조트
- 동해 한섬 레저타운 개발
- 이승휴 유허지 복원

공약 5 국제행사 성공개최 지원

- 2008 삼척 세계소방장비 EXPO
- 제3회 ANGVA 2009 동해 EXPO

선거구명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송훈석
정 당 명	무소속	

공약 1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 국비 우선 지원

- 설악동 재정비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현재 기본계획이 마련돼 도와 환경부가 공원계획 변경을 협의중입니다.
- 올해부터 2015년까지 총 5,699억원을 들여 현재 A~F지구로 돼 있는 설악동을 3개 지구로 나눠 다변화 되는 관광시장에 맞도록 재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구는 자연생태, 문화지구로 제2지구는 철거후 생태복원, 제3지구는 자연식생, 양호지역은 보전하고 나머지는 친환경적 개발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 무엇보다 재정비에 앞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숙박과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는 B·C지구를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 사업은 설악권 개발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것입니다.

공약 2 통일관광·실향민 문화타운 조성

- 속초시를 전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통일관광·실향민 문화타운」조성을 통한 평화통일의 전초기지이자, 1천만 실향민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실향관련 모든 행사의 속초 집중으로 지역경제 상승기반 구축 효과 기대하고, 또한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발해 역사를 현재의 시점에서 재조명할 수 있는 ‘발해 역사문화 체험장’을 건립해 전국의 학생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 사업에 국비를 대폭 지원해 발해와 속초시가 시공을 초월해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역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북 5도민 기록보존관, 발해민속체험장, 발해역사 야외전시장, 발해역사관, 통일로 가는 열창등을 내년부터 추진해 2013년에 1단계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3 오색 - 대청봉간 케이블카 설치 반드시 실현

- 양양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오색~대청봉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대청봉을 중심으로 한 등산로가 탐방객으로 급속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서 산에 접근하는 방법의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 관광여건의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설악권 공동화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과 생태보전 및 모두가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 패턴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현재 환경부 등에서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으나 환경을 중시하는 스위스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 케이블카 설치가 오히려 환경훼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설악권 개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이 사업의 성사는 더욱 쉽다고 하겠습니다.
 - ※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삭제 및 개정 필요(환경부)
 - ⇒ 자연보존지구내 2km · 50인용 이하 제한조항

공약 4 **진부령(46번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 조기 추진**

- 남북을 연결하는 최단 교통망 확충으로 남북교류는 물론 고성군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와 그로 인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진부령 확포장공사가 건설교통부의 교통량 조사결과등을 통한 단편적 기준으로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추진 시기가 계속 미루어져 왔습니다.
- 고성군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가장 우선시 되는 현안으로 용대리~대대리 29.4km 구간을 국토해양부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검토를 협의해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 5 **서울 - 춘천 - 양양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

- 영동고속도로 및 중앙고속도로를 연계한 동해안 관광벨트 구축 및 강원내륙 및 양양오색지구 경기활성화와 양양군을 비롯한 인접지역 관광개발 육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동서고속도로 건설을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 춘천~양양간 88.6km 구간의 2008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조 8059억원의 연도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구명	홍천군 · 횡성군	황영철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100만불 프로젝트』

100개 (기업유치)+10,000개 (일자리창출)하여 “20만, 홍천, 횡성 성공시대” 주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 국가전략산업단지 조성 및 일자리 창출
 - 메디컬 콤플렉스는 의료+농업+바이오산업 등이 연관된 고부가가치 창출의 복합의료 산업단지
 - 제약, 의료, 기능성 농업식품 우량기업 유치
 - 리더스 카운티와 연계한 실버관련산업 기업유치
- 권역별 『관광 레저단지 유치』조성
 - 토지 규제완화를 통한 한계농지 및 임야 개발
 - 산, 강, 임도를 활용한 모험레포츠 개발과 기반시설조성
- 지역 테마축제 활성화 추진
 - 홍천인삼축제, 옥수수축제 지원 강화
 - 안흥찐빵축제 특구 추진

공약 2 『사통팔달의 교통망』구축

- SOC사업 조기완공
 - 동서고속도로(서울-양양) 조양 IC 양방향 진출입로 확보
 - 국도5호선(횡성~원주)6차선 확포장
 - 국도5호선(홍천~횡성)4차선 확포장
 - 국도6호선(서원-공근) 집중예산확보를 통한 조기 완공
 - 국도42호선(우천-안흥) 전차터널 조기개통
 - 국도56호선(화촌-서석) 4차선 확 · 포장
- ※ 내륙순환철도(홍천~용문) 적극 추진

공약 3 재래시장 활성화 및 비료값 · 사료값 인하

■ **서민들의 웃음꽃, 사람과 돈을 모이게 하겠습니다.**

■ **지역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까지, 잘사는 농촌「농업 뉴타운」으로 만들겠습니다.**

- 재래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 조성
 - 주차장 등 수요기반 확충
 - 상인중심의 시장경기 활성화
- 『사료안정기금』 조성 및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확충
- 작목별 「특산물 가공센터」 조성 및 「농산물 유통사업단」 설립
- 서울시와 직거래 활성화
- 작목별, 지역별 특화작목 지원

공약 4 기초노령연금 확대 지급

■ **노후가 아름다운 세상, 따뜻한 복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6.25참전용사 참전비 건립 및 베트남 참전용사 65세부터 수당 지급
- 보훈가족 및 상이군경의 처우 개선
-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및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확대
- 반장님들께 산재보험 적용
 - ※ 결혼이민자 주부 및 아동양육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공약 5 LNG 조기 공급과 향토인재 및 학교지원 강화

■ **주거환경 개선, 살기좋은 흥천·횡성을 만들겠습니다**

■ **교육환경 개선, 우리아이를 향토인재로 키우겠습니다.**

- 생태공원 및 문화체육공원 조성
 - 중앙공원(두개비산), 3.1공원
- 보육비(어린이집) 전액 무상지원(0~만5세)
- 교육환경 개선 및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지원
 - 폐교를 활용하여 테마별 교육공간으로 조성
 - 원어민 교사 채용 확대
- 향토학교 지원 강화
 - 기존 공립고를 기숙형 공립고로 전환 지원
 - 실업고, 농고를 마이스터교로 특별지원

-
-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제도 확대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무상장학금 지원
 - 차상위 계층 자녀 70%까지 장학금 확대
 - 지역인재 경쟁력 연구회 구성
 - 지역출신 인재와 미래인재의 교류확대

선거구명	태백시·영월군 평창군·정선군	이광재
정당명	통합민주당	

공약 1 강원랜드 2단계 사업, 대기업 유치 등으로 일자리 창출

■ 현황

- 강원랜드 2단계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 서울대 농생대 연구단지 대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 태백 서학레저단지, 영월 동강시스타 사업, 정선 신동 친환경골프장 건설 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 정선 농업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

■ 정책과제

- 기업 유치에 따른 행정적 제반요건 절차 지원 필요
- 국고지원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추진

■ 예산확보방안

- 예산 보다는 정책적 추진 사항이 중요

■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입 기대
-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폐광지역 새로운 경제동력 확보

공약 2 태영평정 명문중·고 육성 프로젝트

■ 현황

- 영월고, 평창고, 정선고 농어촌 우수고등학교로 지정(각 16억원씩 지원)
- 태영평정 전국 최초로 교육조례 제정통해 자치단체 자체수입 중 10% 이상을 교육에 투자(태백 27억원, 영월 18억원, 평창 10억원, 정선 24억원)

■ 정책과제

- 명문중·고 육성 통해 교육경쟁력 강화 필요
- 명문중·고 육성과 함께 지속적인 태영평정 지역별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필요
- 태영평정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 교육 지원 통한 취업명문학교 육성

■ 예산확보방안

- 태영평정 교육조례에 따른 자치단체 교육지원 예산 활용(년간 100억원 규모)
- 강원랜드 지원사업을 통한 예산조달
- 교육특별교부금을 통한 교육환경개선 지속 추진(2004~2007년간 총 60억원 교육 특교 지원)
- 1사1촌 활성화(확대) 통한 예산절감 효과 기대

■ 기대효과

- 교육지원을 통한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는 인구 유출 차단효과도 기대
-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경쟁력 확보로 사교육비 절감효과

공약 3

경로당지원 특별법 제정(월 50만원 지원) 및 재가진폐자 생활보호비 지원 입법화

■ 현황

- 2007년 기준 노인인구 비율 태백 12.3%, 영월 20.1%, 평창 17.6%, 정선 16.8%
- 강원도 등록 경로당 수 2,617개(태백 70, 영월 150, 평창 146, 정선 100개)

■ 정책과제

-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부재
- 경로당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전국 경로당에 월평균 50만원 국고지원(현재 평균 지원 40만원 + 50만원 국고지원)
- 지자체 재정자립도 및 낙후도, 경로당 규모 등에 따라 국고지원 비율 조정

■ 예산확보방안

- 전국 경로당 52,000여개 ($52,000 \times 50\text{만원} \times 12 = 3,120\text{억원}$)
- 노인복지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집행을 담당토록 노인복지 체계 변화 추진

■ 기대효과

- 경로당을 노인 자기 개발의 장으로 활용
- 노인 경제·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정서적 문제에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 가능

공약 4

도시가스 공급 통한 난방비 절감

■ 현황

- '07년 말 기준 전국 88개 시·군에 도시가스 공급 중
- 강원도는 춘천, 원주(강릉, 속초는 탱크로리 통해 공급)만 도시가스 공급 중
- 영월 LNG 복합화력발전소 2010년 5월 31일부터 LNG 공급 가능

■ 정책과제

- 2010년 LNG 공급에 맞춰 영월, 태백 등 도시가스 공급 추진
- 2008년 8월 최종 확정 예정인 삼척 LNG 제4인수기지와의 연계, 삼척~영월~제천 배관망 공사 필요

■ 예산확보방안

- 영월 LNG 복합화력발전소(총 사업비 7,200억원) 건설비용은 남부발전(일부 가스 공사) 부담
- 삼척~영월 구간 배관망 사업비(2,000억원 규모)도 가스공사 부담
- LNG 가정 공급은 민간사업자 부담

■ 기대효과

- 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가격체계 결정에서 사회적 형평성 고려,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활동 필요
- 천연가스 공급 시 주택난방비용 기준 LPG나 실내등유에 비해 40% 이상 비용 절감 효과 기대

공약 5

태백 서학레저단지~강원랜드 케이블카 연결

■ 현황

- 태백 서학레저단지 스키장 2008년 12월 개장
- 강원랜드 2009년 가족형콘도 증축되면 연 500만명 방문 예상
- 서학레저단지 스키장 정상(1,450m)~강원랜드 스키장 정상(1,350m) 10.2km 구간에 세계최장길이 케이블카 연결 추진

■ 정책과제

- 백두대간 훼손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 방안 검토
- 필요 예산 1,000억원 확보 방안

■ 예산확보방안

- 강원랜드 사업비 지원
- 태백관광공사(서학레저단지) 사업비 지원
- 민자유치 추진
- 시간당 수송능력 2,400명으로 연간 매출액 약 200억원 예상
- 투자금 회수기간 8년~10년

■ 기대효과

- 관광인프라를 구축된 강원랜드와 태백 서학리조트를 연계한 최고의 랜드마크로 세계적인 관광상품화 가능
- 세계 최장 길이 케이블카로 세계적인 명소화 가능
- 강원랜드 2단계 사업과 연계 통한 폐광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강원랜드~서학리조트~동강시스타~대관령생태공원 연계 관광 시발점

선거구명	철원군 · 화천군 양구군 · 인제군	이용삼
정당명	통합민주당	

공약 1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습니다.

- 군사시설보호법, 환경관련규제법 개정 등으로 각종 건축 및 기업유치 활성화
- 수도권 상수도원 보호구역의 완화 및 수질오염 총량제 합리적 조정
- 농업진흥지역 토지의 합리적 조정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와 행정위탁위임지역 확대 및 군공여지 반환추진

공약 2 농촌을 지켜내고 농업을 살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강대국의 식량무기화에 대비하고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FTA 선 체결 · 비준에 앞서 사전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겠습니다.
- 새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의 폐지를 막아내 국토의 70%인 산림, 농업과 농촌의 근간을 지켜내겠습니다.

공약 3 접경지역 지원강화로 지역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및 보완으로 통일기반 조성
- 군부대 주변 환경 정비 및 직업군인가족 주거환경개선
- 군 장병 지역주민화로 예산(교부세)증액
- 동서 DMZ 평화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사업 활성화

공약 4 농촌, 서민, 노인 및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 편에 서겠습니다.

- 서민층, 접경지역, 농촌지역 자녀들의 대입특례제도 개선과 등록금 · 수업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교육관련법 개선
- 노인 및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및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 철 원
 - 한탄강댐건설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방안 강구
 - 경원선 조기완공, 금강산전철 복원 추진 및 한탄강관광특구 적극추진
 - 87번국도(동송-포천)확포장, 47번국도(일동-김화)조기완공
 - 의정부-포천-철원간 전철 연결사업 추진
- 화 천
 - 배후령터널 조기완공(춘천-화천)
 - 백암산 평화·생태 특구사업 적극지원
 - 광덕-이동간 316번 지방도 터널개선 추진
 - 화천-춘천간 5번국도 확장개선 추진
- 양 구
 - 46번국도(춘천-양구간) 직선화 전구간 조기개통
 - 돌산령터널, 31번국도 확장 조기완공 및 내금강 개방추진
 - 해안면 국유지 경작자 불하관련법 제정추진
 - 파로호 공수리-동수리간 습지횡단교량건설 추진
- 인 제
 -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을 위한 자연식품(산채,장뇌삼 등) 가공공장 및 유통시설 건립추진
 - 소양호 생태계복원프로젝트 추진
 - 야생동물사파리공원 및 대규모 서바이벌리조트 건립 추진
 - 모험관광 특구 추진 및 국립 산림전문대학 설립 추진 지역발전에는 여·아가 따로 없습니다. 단체장,지방의원, 사회단체장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역발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에 중진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 기타 강원도 또는 시군 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각종사업 적극지원